

또래 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와 친구 관계의 관련성 : 친구관계망,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Relationships between Victimization by Peers, Bullying, and Friendships, with
a focus on Friendship Network, Friendship Quality, and Friends' Characteristics*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조교수 신 유 림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istant Professor : Yoolim Sh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eer victimization by peers, bullying, and friendships, with a focus on friendship network, friendship quality, and friends'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were 678 fifth and sixth grade primary school children recruited from a public school in Bucheon city. The peer nomination index was used to assess peer victimization, bullying, and friendship network. In addition, children themselves reported on the quality of their friendships using the Friendship Quality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victimization by peers was influenced by friendship network size, support, and victimization of friends, whereas bullying was explained by support and the bullying behaviors of friends.

주제어(Key Words): 또래 괴롭힘(peer victimization), 친구관계망(friendship network), 친구관계 질(friendship quality), 친구특성(friend characteristics)

I. 서론

학령기가 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한 명 이상의 아동과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친구관계는 학교선호, 외로움 및 자아개념과 같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친구관계가 이러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위기적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Hartup, 1996; Schwartz, McFadyen-Ketchum, Dodge, Petit, & Bates, 1998) 학교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과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선행 연구결과를 보면, 피해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며 친밀한 친구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지만(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친밀한 친구가 있는 아동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았다(Hodge, Boivin, Vitro, & Bukowski, 1999; 최미경, 도현심, 2000; 신재은, 2000).

Hartup(1996)은 아동기 친구관계의 발달적 기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친구관계망의 크기와 같은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행동 특성과 같은 측면을 통합한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Hartup 모델의 첫 번째 친구관계 측면은 친구관계망으로 이는 아동이 형성하고 있는 전체 친구의 수로 측정되는데, 이러한 친구관계망 크기의 차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호작용의 선호차를 반영한다(Parker, Saxon, Asher, & Kovacs, 1999). 아동의 맺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 한명이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아동에게 제공할 수 없으므로, 친구관계망에 소속된 서로 다른 다양한 친구들이 동료애, 친밀감 및 신뢰감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Parker *et al.*, 1999).

선행연구를 보면 연구자마다 친구관계망을 측정하는 방법에서 상호성 여부 및 친구 지명 수의 제한에서 차이가 있다. 두 명의 아동이 서로를 친구라고 지명하고 선택하는 상호성(reciprocity) 측면에서 볼 때, 국내에서 진행된 일부 연구들은(고윤주, 이은해, & Mendelson, 2001; 이춘재, 곽금주, 2000; 최정미, 김미란, 2003) 상호성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지명으로 친구 수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아동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아동 자신이 친구로 지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이름의 수를 친구의 전체 수로 계산하거나(이춘재, 곽금주, 2000; 최정미, 김미란, 2003), 아동의 학급 또래들 중 20명 이내로 친구라고 생각하는 아동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친구 각각에 대해 얼마나 친밀한가를 표기한 후 아주 친한 친구로 표기한 아동의 수를 종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고윤주, 이은해, & Mendelson, 2001). 이러한 일방적인 지명을 친구관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Berndt(1996)는 아동은 실제 친구보다는 학급에서 친구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인기가 있는 또래를 자신의 친구로 지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상호성에 근거한 친구관계는 질적인 측면에서 일방적인(unilateral) 친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데, 상호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친구관계에서 긍정적인 지원의 기능을 높게 지각하고 만족도가 높았다(이은해, 1999).

친구 지명 수에서 보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동에게 친구의 수를 3명 또는 5명 이내로 수를 제한하여 지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의 제한은 친구관계 측정에 오류가 개입될 수 있다. 친구가 두 명인 경우 세 번째 지명 시 친구가 아닌 일반 또래를 지명할 수 있으며, 반면에 3명 이상의 친구를 둔 경우에는 친구를 제외시켜야 하는 측정상의 문제점이 있다(Berndt, 1996). 또한 이러한 제한된 수로 지명하는 방법은 20명 전후의 아동으로 구성된 서구의 학급과 달리 상대적으로 큰 학급의 크기로 구성된 한국과 같은 문화권에 적용되었을 때, 정확한 친구관계망의 크기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Yiyuan, Farver, Schwartz와 Chang(2004)는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0명 전후되는 학급 크기를 고려하여 수의 제한 없이 친구를 지명하도록 한 결과 최대 14명의 상호 지명 친구의 수를 보고한 바 있다.

Hartup이 모델에서 제안한 두 번째 측면은 친구관계의 질로 이는 친구사이에 공유하는 활동이 아동에게 어떤 사회적 기능(social provision) 및 욕구를 제공하는가를 의미한다(Berndt, 1996). Bukowski, Hoza와 Boivin(1994)은 친구관계 질에 대하여 하위체계를 적용하여 친밀감, 동료애, 안정성과 지원하기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 괴롭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는데, 일반 아동들과 비교해볼 때, 가해 아동들의 친구관계의 질은 일반 아동과 유사하거나 낮지 않은 반면에, 피해 아동들의 경우 친구관계의 질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해, 고윤주, 2004; Pellegrini *et al.*, 1999). 그러나 대부분 선행연구들은 아동들을 피해, 가해 및 일반아동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친구관계의 질을 비교하였으나 친구관계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 중 어떠한 측면이 또래 괴롭힘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친구관계의 세 번째 측면은 친구들의 특성으로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의 행동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친구관계의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적응력이 높은 친구들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제공한다(Parker, Rubin, Price, & DeRosier, 1995). 반면에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행동문제를 가진 친구는 아동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공격적인 성향의 또래와 친구관계를 경험한 아동은 파괴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Lansford, Criss, Pettit, Dodge, & Bates, 1999).

연구자들은 서로 비슷한 성향이나 행동 특성을 공유한 아동들끼리 친구가 된다는 유유상종(homophily)의 원리에 의해 친구관계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기초해볼 때, 또래 괴롭힘의 가해 행위는 공격성과 같은 행동특성을 공유한 아동들의 집단에 의해 야기될 수 있으며(이은혜, 고윤주, 2004), 가해 행동을 통하여 이러한 공격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친구 역시 피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친구들은 신체적으로 취약하고, 위축적인 특성으로 인해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 Booth-Laforce, & Burgess, 2006). 피해 아동의 친구들을 피해, 가해, 및 일반 집단으로 분류해본 결과, 가해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 소속된 친구들만이 보호적인 기능을 할 수 있었다(Pellegrini et al., 1999). Hodges et al.,(1999)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특성을 지닌 친구가 친구를 위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통해 또래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주는 요인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양적인 측면인 친구의 수로 측정된 친구관계망의 크기를 측정하고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친구관계 질이나 친구의 특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을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또래 괴롭힘과 친구 관계의 세 가지 차원과의 관련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세 가지 차원을 한 연구에서 통합하여 또래 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또래 괴롭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가해 또는 피해의 한 쪽 측면만을 연구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의 가해 행동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가 과거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져 온 것에 비해, 피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받기 시작해왔다. 특히 괴롭힘을 가해와 피해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친구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이 이러한 피해 및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의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아동기의 친구관계의 경험과 또래 괴롭힘의 관련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Hartup(1996)이 통합적인 모델을 기초로 친구 지명의 수에 대한 제한 없이 상호 지명 및 선택에 기초한 친구관계망 크기와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피해 및 가해 정도를 측정하여 이러한 친구관계의 다양한 측면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 하에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관계망 크기,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피해가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둘째, 친구관계망 크기,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가해가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천시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 한 곳에서 표집된 4, 5, 6학년 아동 678명이다. 학년 별 연구 대상의 수는 4학년 259명(38.2%), 5학년 245명(36.1%), 6학년은 174명(25.7%)명 이었다. 대상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자 아동이 354명(52.2%)이며, 여자 아동이 324명(47.8%) 이었다. 학급별 아동 수는 평균 40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또래 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

본 연구에서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는 Schwartz, Farver, Chang과 Lee-Shin(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Peer Nomination Index(PNI)를 사용하였다. 학급 아동의 전체 이름이 기재된 명단을 각 아동에게 배부해주고 PNI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에 적합한 아동을 학급에서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문항 중 또래 괴롭힘의 피해는 총 7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며(예: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가해는 5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예: 다른 아이들을 놀이에 끼워 주지 않고 따돌려서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

또래 괴롭힘 피해 점수는 7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학급의 또래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계산하고, 이 점수를 각 학급별로 Z 점수로 변환하였다. 또래 괴롭힘 가해 점수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어 Z 점수로 변환하였다. 또래 괴롭힘에 대한 신뢰도를 내적 일치도로 계산한 결과 피해는 .87, 가해는 .84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친구관계

또래 지명법을 통해 인원수에 제한 없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아동을 지명하도록 하고, 두 명의 아동이 상호 지명한 빈도로 친구의 수를 계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친구관계망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각 학급별 전체 인원수가 동일하지 않으므

로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학급별 Z 점수로 변환하였다.

친구관계의 질은 자기 보고법인 Friendship Quality Scale(FQS: Bukowski et al., 1994)을 사용하였다. 아동들에게 나와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지명하고, 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FQS는 친구관계의 4개 하위 영역(지원하기, 동료애, 친밀감/안정감, 갈등해결)의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원하기(support)(예: 다른 아이들이 내 뒤에서 나를 홍보하면 내 친구는 나의 편이 되어 준다.) 안정감/친밀감(security/intimacy)(예: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예: 우리는 싸운 후에 쉽게 화해한다.)의 세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하위척도별로 평균을 계산하였다. 하위척도별 내적 일치도를 보면 지원하기는 .85, 친밀감/안정감 .77, 갈등해결은 .89로 나타났다.

Hodge et al.,(1999)의 연구를 기초로 친구의 가해 및 피해 점수는 친구로 상호 지명된 각각의 아동들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전체 친구의 수로 나누어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 수집 시기는 12월인 2학기 말로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과 교사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선정된 학급별 아동의 명단을 받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을 전공한 훈련된 연구보조원들이 각 학급을 방문하여 설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 후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완성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실제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의 전

체수를 측정하는 것이며, 친구관계의 질 척도는 실제 상호 지명적인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에 대한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친구의 가해 및 피해 점수도 실제 상호 지명적인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의 점수가 분석자료로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친구가 한명 이상인 아동만을 대상으로 분석되었으며 친구가 없는 아동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문제 1와 2은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친구관계 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를 통하여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또래 지명법에 기초하여 계산된 아동의 피해 및 가해의 평균 Z점수 및 표준 편차와 범위를 고려해보았을 때 피해 및 가해 정도에서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 변인을 보면, 친구관계망의 평균 크기는 3.51로 아동들은 학급에서 약 3-4명의 또래와 상호지명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망의 범위는 0-14로 나타났으며, 수의 제한 없이 친구를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최대 14명의 친구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의 질의 하위척도를 보면 5점 척도에서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 연구 대상 아동들이 친구관계 질에 대하여 긍정적인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의 피해 및 가해의 평균 Z점수를 표준 편차와 범위와 비교해보았을 때 친구의 피해 및 가해 정도에서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

(N=678)

연구 변인		M	SD	범 위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Z점수)	.001	.988	-.87 - 5.50
	피해(Z점수)	.002	.988	-1.02 - 5.70
친구관계망 크기		3.51	2.84	0-14
친구관계 질	지원하기	3.70	.85	1-5
	친밀감/안정감	3.51	.95	1-5
	갈등해결	4.15	.82	1-5
친구의 또래 괴롭힘	피해(Z점수)	.47	.41	.01-4.69
	가해(Z점수)	.62	.43	.03-3.20

2.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친구관계 변인의 상관관계

연구문제 1에 대하여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친구관계 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 및 피해는 친구관계망 크기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친구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피해 및 가해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래 괴롭힘 피해는 친구관계 질의 하위 척도 모두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피해 정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친구와 갈등해결 및 친밀감/안정감의 정도가 낮고 친구로부터 지원을 덜 받는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친구관계 질의 하위척도와 가해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과 친구의 피해 점수사이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아동일수록 친구의 피해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가해 점수는 친구의 가해 점수와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아동의 가해 정도

가 높을 경우에 친구의 가해 정도 역시 높음을 보여준다.

3. 연구문제 1 :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2>에서 제시된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378 이하였으며, VIF는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대하여 친구관계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친구수가 1명 이상인 57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성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친구관계망 크기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친구관계 질의 3가지 하위척도를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친구의 피해점수를 4단계에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피해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표 2>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N=577)

	1	2	3	4	5	6	7	8
1. 아동의 성 ^a								
2. 친구관계망크기	.218***							
3. 아동의 피해	-.134***	-.284***						
4. 아동의 가해	-.252***	-.085*	.254***					
5. 갈등해결	.089*	.193***	-.141***	.031				
6. 친밀감/안정감	.107**	.153***	-.127***	.050	.378***			
7. 지원하기	.134**	.302***	-.265***	.050	.305***	.355***		
8. 친구의 피해	-.050	-.020	.120***	-.070	.043	.049	-.013	
9. 친구의 가해	-.182***	-.034	-.055	.160***	-.036	.035	.025	-.074

a: 남아=1, 여아=2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577)

변인 \ 단계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4단계 β
아동의 성 ^a	-.116**	-.086*	-.086*	-.082
친구관계망크기		-.225***	-.205**	-.203**
지원하기			-.119**	-.111**
친밀감/안정감			.069	.060
갈등해결			-.002	-.006
친구의 또래 괴롭힘 피해				.084*
ΔR^2	.013**	.050***	.008*	.007*
R^2	.013	.063	.071	.078
F	7.085*	27.695***	3.547*	3.921*

a: 남아=1, 여아=2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또래 괴롭힘 가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577)

변인	단 계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4단계 β
아동의 성 ^a		-.264***	-.260***	-.265***	-.243***
친구관계망크기			-.034	-.064	-.063
지원하기				.123**	.116**
친근감/안정감				-.010	-.014
갈등해결				.047	.056
친구의 또래 괴롭힘 가해					.128**
ΔR^2		.070***	.001	.020**	.016**
R^2		.070	.071	.091	.107
F		39.176***	19.887***	10.365***	10.297***

^a: 남아=1, 여아=2* $p < .05$ ** $p < .01$ *** $p < .001$

변인은 아동의 성, 친구관계망의 크기, 지원하기 및 친구의 피해점수로 나타났다.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아동의 성은 피해를 1.3% 설명해주었으며($\beta = -.116, p < .01$), 2단계의 친구관계망 크기는 추가로 5.0%를 설명하였고($\beta = -.225, p < .001$), 3단계에서는 지원하기가 0.8% 설명하였고($\beta = -.119, p < .05$), 4단계에서 친구의 피해점수가 0.7% 추가로 설명하였다($\beta = .084, p < .05$).

즉 친구관계망 크기가 작을수록, 친구로부터 지원을 덜 받는다고 지각하며, 친구의 또래 괴롭힘 피해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4. 연구문제 2 : 또래 괴롭힘 가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에 대하여 친구관계 변인들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친구수가 1명 이상인 577명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가해에 대한 친구관계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1단계에서 아동의 성을 투입하였고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친구관계망 크기를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친구관계 질의 3가지 하위척도를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 친구의 가해 점수 투입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를 보면 아동의 성은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종속변인을 0.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4, p < .001$). 2단계로 투입된 친구관계망 크기($\beta = -.034, ns$)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었다. 3단계에서 투입된 친구관계의 질에서 지원하기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으며($\beta = .123, p < .01$), 추가로 가해를 2.0%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입된 친구의 가해도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으며($\beta = .128, p < .01$), 추가로 1.6% 설명력이 나타났다.

즉, 여아보다는 남아가, 그리고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친구의 가해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를 친구관계망 크기,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가해 및 피해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측정하여 또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와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문제 1 : 친구관계망 크기,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피해가 아동의 피해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친구관계망 크기는 괴롭힘의 피해를 유의미하게 정도를 예언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Schwartz *et al.*, 1998; 2002)의 결과를 지지해주며 비록 피해 정도에서 유사한 아동들 사이의 친구관계일지라도 이러한 친구관계가 피해의 가능성을 낮추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또래 집단의 사회적 수용(social acceptance)과 관련지어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친구는 이 아동이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는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며(Parker *et al.*, 1999), 또래 수용은 아동의 괴롭힘의 피해를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wartz *et al.*, 1998). 따라서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또래 수용을 매개로 하여 피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래 집단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해석해 보면 가해 아동들

은 자신의 가해 행동에 대해 보복을 할 가능성이 낮은 친구가 없는 아동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Hodge *et al.*, 1999), 많은 수의 친구는 괴롭힘의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을 가해 아동들로부터 표적이 될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기의 친구관계는 아동의 사회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Berndt, 1996). 따라서 친구관계가 또래 괴롭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키며 이러한 기술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들은 정서 규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인 정서를 규제하는 능력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뿐만 아니라(Parker *et al.*, 1995), 잠재적인 괴롭힘의 피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Schwartz *et al.*, 1998). 특히 폭넓은 친구관계망을 형성한 아동들의 경우에 다양한 대인 관계의 맥락을 경험하게 됨으로 이를 통하여 사회적 기술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친구관계 질의 하위 측정에서 지원하기를 제외하고 다른 하위 영역은 아동의 피해 및 가해에 대한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발달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발달에 따라 친구에 대한 개념 및 기능도 변화하게 되는데, 도구적 및 정서적인 지원하기와 같은 기능은 초등학교 학령기에 중요한 기능이다. 반면에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들 사이에 친밀함(intimacy)의 정도가 증가하며,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인 자아를 탐색하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ndt, 1996) 따라서 본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볼 때, 친밀감과 같은 하위 기능은 아동기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친구관계망 크기와 질을 통제한 후에도 친구의 피해가 유의미한 예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발달적 기능은 아동과 친구사이의 행동 유사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아동이 친구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성향 측면에서 유사할 때에만 친구가 보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Haselager, Hartup, & van Lieshout, Riksen-Waleaven, 1998).

3. 연구문제 2 : 친구관계망 크기,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가해가 아동의 가해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

아동의 피해와는 다르게 가해의 경우에는 친구관계망의 크기는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 남자 아동의 경우 친구관계망이 가해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Boulton(1999)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

한 차이는 친구관계망의 측정 방법의 차이에 기인되며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의 성을 통제하여 얻은 결과이므로 이에 의한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친구로부터 ‘지원받기’ 하위 척도가 가해행동을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 행동의 경우 친구의 수와 같은 양적인 측면보다는 친구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아동의 가해 행동에 대한 설명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친구관계 질의 동일한 긍정적 하위체계인 ‘지원하기’가 가해와 피해에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주는데, 피해의 경우에는 이를 방어해주는 기능을 하는 반면에 가해의 경우에는 강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가해 정도는 친구관계망 크기와 친구관계 질을 통제한 후에도 친구관계망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가해적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망 내 구성원들의 행동 규범이 또래 괴롭힘에 대한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아동의 가해 행동은 동일한 관계망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가해적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된 Vitaro, Bredgen과 Tremblay(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dams, Bukowski와 Bagwell(2005)은 친구관계가 아동의 특정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 맥락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기초해볼 때, 가해 아동의 경우 유사한 가해 성향을 지닌 아동들을 친구로 선호하고, 이러한 친구로부터 가해 행위에 대한 지원과 인정을 받으며, 이를 통하여 가해 행동이 더욱 강화되는 메커니즘을 친구관계가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친구관계망의 크기뿐만 아니라 친구로부터 어떠한 사회적 및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친구들이 어떠한 행동 특성을 갖고 있는가와 같은 친구관계의 다양한 측면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급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효과적인 개입을 위하여 학급의 친구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의 발생률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존재하는 아동의 친구 관계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기초로 한 추후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Hodge *et al.*, (1999)의 연구를 기초로 친구의 가해 및 피해 정도를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평균점수로 계산하여 전체 친구들의 피해 및 가해 평균 수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동이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친구들과 관계의 경험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점수로 분석하는 방법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Laird, Pettit, Dodge와 Bates(1999)는 친구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내 친구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내 친구는 다른 아이들과 싸움을 한다.'와 같은 문항에 대하여 아동이 3점 척도로 평정하는 자기 보고법을 사용하였다. 최근 Schwartz *et al.*,(2006)은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괴롭힘과 학업능력의 관계에서 친구의 공격성의 중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각각 친구의 공격성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전체 아동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공격성 점수가 평균 이상인 공격적 성향의 친구들의 수와 평균 이하인 친구들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친구의 가해 및 피해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을 비교해보는 연구가 추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이므로 또래 괴롭힘과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종단적인 연구가 추후로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해의 피해를 직접 및 관계적 유형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친구관계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는 연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피해 및 가해 점수에의 정도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에서 개인차가 큰 점을 고려해볼 때, 가해 또는 피해 정도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거나 피해 및 가해 관련 되지 않은 아동을 제외한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친구관계의 관련성을 비교해보는 연구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넷째,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를 형성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분석된 결과이므로 친구 관계의 유무 집단에 따라 피해 및 가해 행동을 비교해보는 연구가 추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아동 자신과 또래를 정보원을 사용한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둔다. 기존 연구에서 자기 보고법에 의존하여 또래 괴롭힘을 측정했던 것과 달리 또래가 평가하도록 하여 특정 집단 내에서 아동 개인이 보이는 특정 행동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평가하고 그 집단 내에서의 역동적인 과정을 평가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의 친구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또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또래 괴롭힘에 대한 예방적인 방안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윤주, 이은해, Mendelson, M. J. (2001).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예언하는 친구의 지원, 갈등 해결 방식 및 친구 관계망간의 구조 모델: 청년 초기, 중기, 후기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25-42.
- 신재은(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8(1), 153-165
- 이은해(1999).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77-95.
- 이은해, 고윤주(2004).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아동학회지*, 24(4), 1-16.
- 이춘재, 박금주(2000). 집단 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 심리학회지*, 13(1), 65-80.
- 최미경,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6.
- 최정미, 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Adams, R. E., Bukowski, W. M., & Bagwell, C.(2005). Stability of agg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as moderated by reciprocated friendship status and friend's agg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39-145.
- Berndt, T. J.(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ren and adolescence* (pp. 346-3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lton, M. J.(1999). Concurrent and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children's playground behavior and social preference, victimization, and bullying. *Child Development*, 70(4), 944-954.
- Bukowski, W. M., Hoza, B., & Boivin, M.(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11(3), 471-484.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Gest, S. D., & Garipey, J. L. (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15-823.
- Hartup, W. W.(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aselager, G. J. T., Hartup, W. H. van Lieshout, C. F. M., & Riksen-Walraven, J. M. A. (1998). Similarities between friends and nonfriend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9*(4), 1198-1208.
- Hodge, E. V., Boivin, M., Vit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Hymel, S., Bowker,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4), 879-896.
- Laird, R. D.,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 (1999). Best friendships, group relationships,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4), 413-437.
- Lansford, J. E., Criss, M. M.,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 (1999). Friendship quality, peer group affiliation, and peer antisocial behavior as moderators of the link between negative parenting and adolescent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2), 161-184.
- Parker, J. G., Rubin, K. H., Price, J. M., & DeRosier, M. E. (1995).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pp. 38-85). New York: Wiley.
- Parker, J. G., Saxon, J. L., Asher, S. R., & Kovacs, D. M. (1999). Dimensions of children's friendship adjustme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loneliness. In J. R. Ken & S. Hymel (Eds.), *Lonelines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201-22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5), 1135-1349.
- Patterson, G. R., Reid, J. B., & Dishion, T. J. (1992). *Antisocial boys*. Eugene, OR: Castalia.
- Pellegrini, A. D., Bartini, M., & Brooks, F. (1999). School bullie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Factors relating group affili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1), 216-224.
- Rubin, H. R., Wojslawowicz, H. C., Rose-Krasnorm L., Booth-Laforce, C., & Burgess, K. B. (2006). The best friendships of shy / withdrawn children: Prevalence, stabi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39-153.
- Salmivalli, C., Huttnen, A., & Lagerspetz, K. M. J. (1997). Peer networks and bullying in school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8*(4), 305-312.
- Schwartz, D., Farver, J., Chang, L., &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13-125.
- Schwartz, D., Gorman, A. H.,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2006). Friendships with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peers as moderators of the link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declines in academic functions. Manuscript under review.
- Schwartz, D., McFadyen-Ketchum, Dodge, K. D., Pettit, G. S., & Bates, J. E. (1998). Peer group victimization as a predictor of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t home and in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1) 87-99.
- Vitaro, F., Bredgen, M., & Tremblay, R. E. (2000). Influence of deviant friends on delinquency: Searching for moderator variab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4), 313-325.
- Yiyuan, X., Farver, J. M., Schwartz, D., & Chang, L. (2003). Identifying aggressive victims in children's peer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3), 243-252.
- Yiyuan, X., Farver, J. M., Schwartz, D., & Chang, L. (2004). Social network and aggressive behavior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4), 401-410.
- Zakriski, A. L., & Coie, J. D. (1996). A comparison of aggressive-rejected children's interpretations of self-directed and other-directed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7*(5), 1048-1070.